



[경제종합] 롯데 바이오 사업 진출 美 BMS 공장 인수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04.24 (0.00)	코스닥 853.08 (0.00)
금리 (미국 3년) 2.91 (+0.01)	환율 (원-달러) 1284.20 (-4.40) (13일)

# 高물가·高금리에 기름붓는 高환율... 韓 경제 '안갯속'

치솟는 원·달러 환율 1300원 위협 美긴축, 中경기둔화 등 악재 산적 금융시장, 원화 약세 장기화 예상 기업 등 외채상환 부담 가중 우려



유도이미지

최근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지속과 증시 하락으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 주말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지만 저점이 24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원화값 하락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상단을 1300원까지 열어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른 많은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는데, 원화의 절하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심한 편이 아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켰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달러당 원화값은 1284.2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1288.6원)보다 4.4원 하락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시장에서는 원화값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도 지난 13일 2.12% 상승해 2600선을 회복했지만 최근 지속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화값은 1300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88.6원에 마감했다. 특히 장중에는 1291.5원까지 치솟는 등 전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280.2원)을 다시 한 번 돌파했다. 이는 무려 5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19일(1296.0원)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요인과 환율상승 기대에 대한 시장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국제원자재 수입, 중국 경제,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중국 경제 불안,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의 대외 리스크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미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원화 약

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3%로 2개월 연속으로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8.5%)에 이어 두달 연속 8%대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8.1%)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과일 연준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단변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대외 경제 여건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달러로 물건을 팔기 때문이다. 즉,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진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억5000만 달러(16.9%)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돼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는 러시아발 전쟁, 미 연준 긴축 및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발 악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환율은 민간 기업·금융기관의 외채 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靑 개방 첫 주말, 구름 인파

靑와대 개방 첫 주말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靑와대에서 시민들이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 부품 대란에 카플레이션 현실화 (자동차+인플레이션) 완성차, 연식변경 신차값도 인상

현대차, 2022 그랜저 2~4% 인상 기아, 연식 변경 K8도 가격 올려 업계 "기본사양 확대적용 등 영향"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요동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코로나 도시 봉쇄 등 잇단 악재로 부품 물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완전 변경이나 부분변경,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1일 연식변경 모델인 '2022 그랜저'를 출시, 가격은 지난해 모델에 비해 2~4% 인상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본사양을 추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됐다는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2022 그랜저'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를 전체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또 인기 트림인 '르블랑'에는 상위 트림에만 적용됐던 스웨이드 내장재와 뒷좌석 수동 커튼 등을 기본 사양으로 추가했다.

또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같은 안전 사양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에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의 경우 3392만원에서 4231만원, 가솔린 3.3 모델은 3676만원에서 4481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3787만~460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모델보다 81만원에서 192만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기아가 지난 2일 선보인 준대형 세단 K8의 연식변경 모델도 기본사양을 추가하고 가격을 인상했다. 기아는 '더 2023 K8'을 출시하면서 고급 사양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프리미엄 옵션 패키지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에 각각 기본으로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트림에는 ▲전동식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후면 전동 선풍기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를, 시그니처 트림에는 ▲스웨이드 내장재를 비롯 ▲후면 전동 선풍기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를 기본 사양으로 편성했다. 가솔린 모델 역시 ▲전동식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글라스를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에 기본으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적게는 39만원에서 128만원가량 인상됐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 北도발대응·경제안보·국제기여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격상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확진자 격리해제' 이번주 본격 논의... 20일께 결론 발표  
▲ 이재명, 국힘 겨냥 "인천을 빛더미로 만든 세력" /사진 뉴스

▲ 대통령실, '여야 지도부 만찬 무산'에 "문 열려있다... 연락달라"  
▲ 윤호중 "尹대통령 출근 탓에 시민 20~30분 지각" 비난



▲ '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검찰 인사 등 과제 산적 /사진 뉴스  
▲ 국회 운영위 내일 개최...尹 비서실 인사 여야 격돌 예고